

협

회

소

식

축산관련단체장,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 적용 건의

본회 전동용 회장, 노영한 전무를 비롯하여 축협중앙회 송찬원 회장, 박순용 상무, 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용 회장, 대한양계협회 최준구 회장, 한국사료협회 이병석 회장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산하 회장들은 지난 9월 5일 김종호 민자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고, 전 기업 양축농가에 대해서도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 요청하였다.

관련 단체장들은 그 동안 사료 관련 부가가치세는 전액 농어촌 발전 기금에 전입되어 축산농가에 되돌려 준다고 정부가 주장하였으나, 관련 법이 '93년 개정되면서 발생 세입의 55%만 축산부문으로 전입될 뿐이고, 이것도 대부분이 용자의 형태로 대출되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경쟁상대국들의 정부는 수출 보조금, 생산 장려금 등의 지원책으로 자국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 부업 농가에게만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금액으로 650억원, 전체농가수의 96%에 대하여 혜택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주도해 가는 전업농의 혜택은 아주 미흡하고 부업 농가 수준이 돼지의 경우 전체 농가의 17.2%, 낙농은 26.2%, 양계는 16.3%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 정부의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축산 시책은 전 기업 육성이면서 전업농을 제외시킨 것은 정부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배합사료의 부가세영세율 전면적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의장은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소홀히 않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95년 축산업 자조금 사업운용계획 승인

본회가 돼지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 홍보, 조사연구, 소비자 및 생산자 교육 등을 통한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9일 정부에 건의한 양돈자조금 사업운용계획(양돈협지 제119-2호) 승인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이를 승인하는 「95 축산업(양돈·양계)자조금 사업운용계획 승인서」를 회신하여 왔다.

금년도 자조금 사업운용계획에 따르면, 돼지분야는 (사)대한양돈협회, 양계분야는 (사)대한양계협회가 각각 사업주체가 되어 해당 자금은 정부가 축산발전기금에서 돼지부문에 1억원, 양계부문에 1억원 등 총 2억을 지원해주며, 본회는 자담형식으로 자조금을 2억원 조성하여 총 3억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양돈분야의 자원별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회원자조금 15천만원, 연수협찬 1천만원, 대회협찬 4천만원 등의 자조금 조성으로 2억원, 촉발기금보조 1억원으로 금년 한해동안 총 3억원을 운용토록 계획되어 있다.

정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곤란 표명

본회의 지난 6월 24일 '92년도 축산기계화사업 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대정부 건의(양돈협지 110-7호)에 대하여 지난 8월 23일 정부는 '92년도 축산기계화사업 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이미 상환한 일부농가와의 형평성문제, 상환기간 연장시 대출건별 새로운 약정서 작성 및 원금회수계획의 전면수정 등의 방대한 업무가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고, 대출조건의 변경시 변경시행일

이후에 대출되는 자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금융기관의 공통된 업무처리 방법임을 감안할 때 '92년 지원된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회신해 왔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축산기계화사업을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통합하고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 조치되었다고 회신해왔다.

사료 및 동물약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본회 전동용 회장은 지난 9월 19일 재정 경제원에 조세감면 규제법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농수산업은 생산자재 구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고 생산비로 흡수하여야 하므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에 의해서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농어민을 지원하고자 농업·수산업에 사용되는 농약, 비료, 농기계, 어망, 어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축산업에 한해서는 50가지 품목의 축산용 기자재만 적용될 뿐 생산비의 대부분을 점하는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하여는 지난 '92년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농업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최근 축산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한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다.

본회, 회장단 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전동용

회장을 비롯하여 기정도, 이명복, 최상백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영한 전무는 돼지고기 가격 전망,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에 대한 대정부 건의, 가격 조절용 돼지고기 수입 중단 건의, 경쟁상대국의 양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배부, 사료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자금 상환기간연장 건의, 냉장육 유통기간 연장문제 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양돈 단체 통합에 관한 내용 ▲양돈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 ▲오제스키병 발생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최근 양돈업계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본회 경기도협의회 개최

본회 경기도 협의회(회장 : 이명복)는 지난 9월 13일 평택지부사무실에서 경기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돼지 오제스키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 병에 노출된 농장에서 오염된 돼지가 판매·이동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하는 등 발생농장에 대한 질병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돼지오제스키병 방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검정소의 능력이 우수한 종돈의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본회, 양산협 세미나 후원

본회는 지난 9월 1일 진주산업대학교에서 양돈산학협동연구회가 주최한 창립 4주년 기념 세

미나를 후원했다.

양돈산학협동연구회의 창립 4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한국 양돈정책 방향' 과 최근 양돈산업의 현안문제인 '돼지 질병예방과 치료' 등 양돈농가들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본회 일선 시군지부 현황파악

본회 지도부(부장 : 정호풍)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일선의 시·군지부를 순회하면서 현지 일선 지부의 갖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호풍 부장은 "회원 규모가 미달되는 지부는 회원 충원을 촉구하고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들을 청취하므로써 협회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순회 출장목적 밝혔다.

그간의 순회출장한 지부는 경기도 7개 지부, 강원도 2개 지부, 충남 5개 지부, 충북 2개 지부, 전북 3개 지부, 전남 8개 지부, 경남 4개 지부, 경북 2개 지부 등으로 총 33개 지부이다.

제4회 서부경남 양돈인 대회 개최

본회 함양지부(지부장 : 하영국)는 지난 9월 18일 함양군 농월정에서 진주, 산청, 함양, 거창, 합천지부로 구성된 서부경남 5개 시·군 양돈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제4회 서부경남 양돈인 대회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양돈인들의 단결을 위해 300여명의 양돈인들이 모여 대회행사와 운동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자리가 되었다.

김영옥 한국양돈개발원장의 「한국양돈의 방향」이라는 대회사를 시작으로 한 양돈인 대회는 "축산폐수를 줄이자", "유해물질 없는 돼지고기

를 생산하자”는 결의를 하고 2부 행사에서는 족구, 피구, 줄다리기, 오락 등으로 각 시·도의 화합을 도모했다.

본회, 안양시흥지부 창립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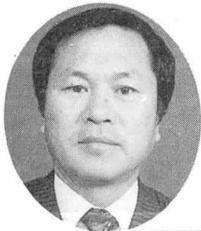


본회 안양시흥지부(지부장 : 김동환)는 지난 8월 18일 지부회원 및 가족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7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립배경과 만 6년 동안의 경과를 뒤돌아 보고 지부의 당면과제 및 중요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오제스키병 예방 및 잔류 항생제에 대한 토의뿐 아니라 여흥의 자리가 마련되어 회원간의 단합을 도모하였다.

광주전남 양돈협동조합장에 본회 전재명 전남도 협의회장 당선



전재명 신임 조합장

본회 전재명 전남도 협의회장은 지난 9월 15일 광주전남 양돈 축산업협동조합 제3대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지난 9월 광주전남 양돈 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전재명 조합장은 4년의 임기동안 조합원들과 함께 광주전남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본회 공주지부장에 유완기씨 선출



유완기 신임 지부장

본회 공주지부는 지난 9월 13일자로 신임 지부장에 유완기씨를 선출했다.

신임 유완기 지부장은 10년전에 충남 공주에서 양돈업을 시작하여 현재 모돈 300두 규모의 소망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농림수산부장관 포상을 수여받은 바가 있다.

한편 임윤수 전 지부장은 건강 관계로 지부장직을 사임하였다.

